

## VII. 가야의 발전과 쇠망

1. 가야연맹의 발전
2. 가야연맹의 약화
3. 가야의 멸망

## VII. 가야의 발전과 쇠망

### 1. 가야연맹의 발전

전기 가야연맹의 해체 이후 5세기 가야지역의 유적 상황은 4세기 이전에 비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우선 패총 및 대형 목곽분 등이 다량 출토된 김해를 중심으로 한 경남 해안지대에서는 5세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분 유적의 수효가 줄어들고 규모도 소형 석곽분 정도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전기 가야연맹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5세기 가야지역 중에서 고령·합천·거창·함양 등지의 산간 내륙 지방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大形 墳丘墓(고총고분)가 나타나는 등 번성하였다. 묘제나 유물의 성격면에서 그들은 4세기 이전 진·변한 문화 공통 기반을 계승하여 상호간에 현저한 유사성을 보였고, 신라문화권의 고분들과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유적 상황은 이 지역이 동일한 문화기반 밑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경제력 및 지배권력이 크게 성장한 것을 반영한다.

원래 이 지역은 최상의 농업 입지조건을 안정적으로 영유하고 있으면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가, 전기 가야연맹 해체 시기에 이르러 경남 해안에 선진문화의 파급으로 철산지 등이 개발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던 듯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령 池山里 고분군의 출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소형 석곽묘의 단계를 거쳐 점차 석곽과 봉분의 규모가 커져서 5세기 후반에는 봉토 직경이 50미터급의 단계에 이르는 대형 고총고분이 나타났으며, 출토 유물도 가야지역의 다른 고분군과 비교하여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고 많았다.

고령을 비롯한 가야 북부지방의 발전에 힘입어 차츰 가야 남부지방의 합

안·창원·김해 등에서도 복구의 기운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 김해지역 고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라 계통 유물이 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그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유물 성격은 낙동강 東岸 신라지역의 고분 유물과 분명히 구분되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차이는 인정되지만, 위에 말한 가야문화권은 5세기 후반에 들어 고령·함양·함안·김해 등지를 포괄하는 지역에 후기 가야연맹이 형성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고고학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가야지역의 추이를 다시 살펴보자.

### 1) 후기 가야연맹의 형성

전기 가야연맹의 소멸과 함께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던 가야지역이 5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국제 환경에는 또다른 변화가 일고 있었다. 우선 신라는 5세기 전반부터 중엽에 걸쳐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고대국가의 기반을 닦아가면서 백제와 화친을 맺었다. 이에 대하여 고구려의 장수왕은 평양 천도를 단행한 이후 남하정책을 추구하던데 결국 재위 63년(475)에 백제를 쳐서 수도 慰禮城(서울)을 함락시켰다. 그리하여 백제는 부득이 熊津(공주)으로 남천하고, 신라는 그 기회를 틈타 추풍령을 넘어 三年山城(보은)까지 진출하는 등 국제관계가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주변 정세가 이처럼 급변하자,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옛 가야지역의 소국들 사이에 재결속의 기운이 일게 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등의 문헌사료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가야」의 이름이 이 무렵부터 다시 나타나는 점, 그리고 이 지역 고분군의 규모나 유물의 양이 이 무렵부터 크게 증대되는 점 등은 가야지역의 재통합 움직임과 직결된 결과였다고 보인다. 그 재통합을 새로이 주도하던 세력은 고령 지산리 고분군을 축조하던 집단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전기 가야연맹 시기에는 김해의 가락국이 大駕洛 즉 大加耶였는데, 당시의 고령세력의 국명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대가야로 국명을 바꾼 것일까.

우선 《日本書紀》繼體紀에 보면 加羅 즉 대가야를 「伴跋」로 지칭한 사례가 몇 번 나오며, 《梁職貢圖》百濟國使傳에도 주변 소국의 하나로서 대가야 대신 「叛波」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叛波 또는 伴跋가 5세기 후반 이후로 「대가야」를 표방한 고령지방의 前主體勢力的 하나였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三國志》魏書 韓傳의 「弁辰半路國」의 존재가 주목되는데, 여기서 「半路」의 「路」字가 「跋」의 오기였다면, 이것도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령은 원래 伴跋(半跋·叛波)國을 칭하면서 변한 연맹 또는 전기 가야연맹의 한 후진세력으로 남아있었으며,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치는 변란기에는 김해·함안과는 달리 심한 타격을 입지 않은 채로 자기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실력을 축적해 나가다가, 5세기 후반에 들어 대가야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김해 중심 가야연맹의 판도를 복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고령지방에 전하고 있는 대가야 시조신화도 5세기 후반의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고령세력이 수로왕과의 시조대부터의 형제관계를 표방함으로써 전기 가야연맹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인식 아래 가야지역을 재통합하려고 한 것이다. 고령세력이 옛 이름인 「가야」를 따서 「대가야」라는 국호를 사용한 이유는 낙동강 서안의 소국들이 당시 크게 성장한 신라에게 쉽사리 포섭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옛 가야연맹으로서의 동질감을 고취시키자는 배려를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제 5세기 후반에 들어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계통의 문헌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국제관계의 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고령 지산리세력 즉 대가야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첫번째로서 《南齊書》의 기록이 눈에 띄는데, 즉 479년에 加羅王 荷知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므로 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하였다는 것이다.<sup>1)</sup>

이 기사에서 가라왕 하지는 고령 대가야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 「하지」는 加耶琴을 만들었다는 가야국 嘉悉王과 이름이 유사하여 동일한

1)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傳 加羅國.

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가야금 및 가실왕 관계 전설이 고령지역에 전하고 있으므로 하지가 고령 대가야의 왕이라는 추정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다.

당시의 대가야는 일단 육로로 河東지역으로 나와 해로로 중국에까지 교통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교통로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가야지역 내부의 통솔관계를 분명히 하고 해로에 대해 백제·고구려가 가하는 제약을 극복해야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내적·외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라왕 하지가 對中交易를 독자적으로 성공시켜 남제로부터 제3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받았다는 점은 가야지역에 신라나 백제에 의존치 않는 독립적인 지배권력의 성장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 후 가야는 481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다시 彌秩夫(홍해)로 진군하는 것을 백제와 함께 원병을 보내 신라군을 도와 막았다고 하였다.<sup>2)</sup> 즉 가야는 이제 삼국관계에서도 하나의 세력변수로 등장하여, 고구려가 동해안로를 따라 신라까지 깊숙이 공략하려는 것을 신라·백제와 함께 공동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490년대에 들어 신라는 백제 동성왕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백제와 공동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허약함을 틈타 추풍령의 안팎지역에 축성하며 팽창하고 있었다. 496년에 가야는 신라에게 白雉를 보내<sup>3)</sup> 호의를 표시하였다. 가야가 신라에게 호의를 표한 것이 백제와의 분쟁 때문이었는지의 여부는 사료의 결핍으로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연맹 결성 이후로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연맹이 국제관계에서 「가야국」의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2) 대가야 세력권의 확립

삼국 및 가야 사이의 국제관계는 6세기에 접어들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서 고구려·백제는 계속하여 변경을 다투며, 백제·신라는 서로 충돌하지 않았으나 변경을 정비하는 정도의 암투는 있었다. 신라는 그런 속에서 지증왕대

2)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3년 3월.

3)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18년 2월.

에 들어 州縣制를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한편으로는 波里(원덕)·彌實(홍해)·珍德·骨火(영천) 등 12城을 쌓고 悉直州軍主를 두는 등 삼척방면의 동해안로 경영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한 변경 정비와 영역 확보에 주력하느라고 신라는 백제·가야와 다툴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가야로서는 이 시기에 자기 세력을 정비하고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가야의 세력권은 고령에서부터 서쪽으로 확산되어 합천·거창·함양 등을 거쳐 지리산 북쪽의 남원군 아영면 즉 阿莫山城까지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고고학적으로 월산리 고분군과 건지리 고분군의 유적·유물성격이 고령 계통의 것임을 보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6세기 초 무령왕대에 南遷의 후유증을 거의 극복하고 남방경영을 서둘러서 지리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남방경영과 대가야의 西進政策이 부딪쳐서 대가야와 백제는 「己汶」을 놓고 영역을 다투게 되는데, 당시에 기문은 대가야에 속해 있었다. 이 사실은 《백제본기》를 토대로 하여 개작된 듯한 《日本書紀》소재의 사료에 보인다.<sup>4)</sup> 여기서의 기문은 가야 계통 국명의 하나로서 《新撰姓氏錄》吉田連條에 上·中·下의 3기문이 나오고, 《梁職貢圖》소재의 百濟旁小國 중에 상기문이 나오며, 《삼국사기》樂志의 우륵 12곡명 중에 상·하의 奇物이 나온다. 기문은 상·하 또는 상·중·하로 나뉘는 것으로 보아 넓은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지금의 남원(옛 지명 古龍郡) 및 임실(옛 지명 任實郡 居斯勿縣)지방으로 비정된다.<sup>5)</sup>

그러므로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 무렵에 대가야는 서쪽으로의 영토 개척을 더욱 추구하여 이미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북도 남원·임실지방을 영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륵 12곡 중에 이들의 지명과 같은 상기물·하기물의 두 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물 즉 기문은 상당 기간 대가야의 영유 아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륵 12곡은 대가야 왕정에서 특별한 의식 때

4)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7년 6월.

5) 古龍의 발음은 「komil」로 추정된다. 己汶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고증은 金泰植, <5세기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12, 서울대, 1985), 78~87쪽 참조.

연주되던 궁정음악 및 연맹체 소속국들의 음악을 궁정악사인 우륵이 듣고 가야금곡으로 편곡한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가야의 의식 때 기문국이 사람을 보내 고유음악을 연주케 할 정도였다면, 그 취득 방식도 백제의 부진함에 실망한 기문국이 자진하여 신흥 대가야의 연맹체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세기에 들어와 왕권의 안정을 회복한 백제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측은 대가야가 기문을 「약탈」하였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침공의 명분을 만들고, 왜에 五經博士 段楊爾를 보내는 등 문화 전수를 통하여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만든 다음 곧바로 반격하여 기문을 강압적으로 회복하였다. 6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 초촌리 고분군의 문화 성격은 백제의 지방지배력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까지 침투해 왔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가야와 백제는 소백산맥과 지리산을 자연적 경계로 삼게 되었다.

또한 백제는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표함으로써 힘을 과시하고, 성공의 여세를 몰아 가야의 커다란 이권의 하나였던 왜와의 교역 항구인 滯沙 즉 帶沙津·多沙津(하동)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경우에도 백제는 무리하게 대가야를 자극하지는 않고, 자기의 우수한 물품을 미끼로 왜를 하동으로 유인하여 그 곳에 대한 대가야의 기존 독점권을 유린하려 한 것이다. 이에 왜는 백제의 문화에 경도되어 백제측에 동조하였던 듯하다.<sup>6)</sup> 즉 가야의 무역권과 백제의 무역권이 경쟁하게 되자, 왜는 보다 이익이 많아 보이는 백제와 연결코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가야는 구태의연하게 왜의 한 세력에게 무역선을 보내 교역을 자청하였으나, 이미 백제가 사전 공작을 벌여 선수를 친 뒤라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

앞서 5세기 후반에 후기 가야연맹체를 형성시키고 그 맹주로 대두한 대가야는 얼마 후 그 여세를 몰아 소백산맥을 넘어 남원·임실지방까지 진출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하였으나, 6세기 초에 이르러 백제의 반격과 세련된 대처방안에 휘말려 실패하고 도리어 하동 방면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6)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7년 11월. 사료에서 왜가 己汶과 帶沙를 백제에게 주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런 정도의 상황에 대한 왜곡일 것이다.

국제관계의 힘의 원리에 시달리면서 대가야는 점차 자기 세력 자체내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수성기로 돌입하게 된 듯하다.

그리하여 대가야는 팽창을 멈추고 주변과의 경계지역에 성을 쌓음으로써 자기 세력권을 안으로 정비해 나가게 된다. 즉 대가야는 子吞(진주)과 대사(하동)에 성을 쌓아 滿奚(광양)에 이어지게 하고, 烽候와 邸閣을 설치하여 백제 및 왜국에 대비하였다. 또한 爾列比(의령 부림)와 麻須比(창녕 영산)에 성을 쌓아 麻且奚(삼랑진)·推封(밀양)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 신라를 위협하였다.<sup>7)</sup> 대가야의 축성 범위로 보아 후기 가야연맹 중에서도 대가야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세력권은 일단 소백산맥으로 서쪽 경계를 이루고, 동남쪽으로는 낙동강과 남강으로 경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령 계통 토기유물의 분포 범위와도 일치한다.

또한 대가야는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무력을 행사하여 사방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그 영역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좀더 좁혀서 생각한다면 가야연맹의 영역내에서 왜와 백제·신라 사이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비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듬해 왜에 갔던 백제사신의 선박이 500명 정도의 수군을 태운 왜의 선박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에 沙都嶋(거제도)에 이르렀는데, 伴跛人 즉 대가야가 한을 품고 사납게 군다는 말을 듣고는 근처에 상륙을 못하여, 백제사신은 신라를 통하여 상륙하였고 왜의 선단은 곧장 帶沙江(섬진강 하구)에 이르러 정박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대가야는 그것도 용납하지 않고 6일만에 그들을 공격하여,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빼앗고 천막을 모두 태웠으며, 왜선들은 달아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汶慕羅(섬 이름, 미상)에 정박하였다.<sup>8)</sup>

多沙津 즉 하동은 전통적으로 가야와 왜 사이의 교역항구였는데, 백제가 이를 빼앗아 왜와의 교역에 이용하려 한 것이고, 대가야는 이미 그 곳에 축성해 두고 지키고 있다가 저지하려 한 것이다. 왜의 선단은 지난번 기문을 둘러싼 백제·가야의 영역 다툼 이후로 백제의 우월성을 믿고 다사전에 와서 백제측의 교역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를 용납치 않는 대가야의 공

7)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8년 3월.

8)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9년 2월 및 4월.



격을 받아 도망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가야는 왜에 대한 중개무역의 주도권을 백제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우려감에서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하동지방의 이용을 억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섬에 후퇴해 있던 왜인들은 그 다음 해에 결국 기문예까지 도착하였으며, 백제는 이들을 도성까지 불러들여 衣裳·斧鐵·帛布 등을 주어 후한 교역을 이루었다.<sup>9)</sup> 여기서 왜인 일행이 기문까지 어떻게 들어왔는 지는 불문하고, 그들이 일년 이상이나 기다렸다는 점이나 대가야의 방해로 무릅쓰고 통과하여 기문까지 도달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왜는 백제와의 교역에 대하여 집요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백제는 그들을 우월한 교역물품으로 유인하는 여유있는 태세였다고 생각된다.

사건의 결과 대가야는 다스린 영유권 분쟁에서는 백제에게 이기고 하동을 지켜냈으나, 對倭貿易 경쟁에서는 결국 선진문물을 앞세운 백제에게 패배한 꼴이 되었다. 그 이후로 백제와 왜는 가야를 제쳐두고 빈번한 교역을 성립시켰을 것이므로 가야는 아직 내부체제도 정비하지 못한 중에 대외적인 고립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 3) 후기 가야연맹의 영역

5~6세기 후기가야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한 고고학 자료로는 해당 시기 영남지방의 수혈식 석곽묘를 위주로 한 고분 유적 자료가 있다.

토광목곽묘 문화 말기 이래로 영남지방의 고분 유적·유물의 계통은 크게 2개의 문화권으로 양분되기 시작하며, 그러한 현상은 그에 중복되면서 이어지는 석곽묘 유적에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문화권 양분은 곧 신라·가야 세력권의 분리와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고구려의 배경 아래 경주세력의 주도로 일어나는 신라의 영역 팽창과 가야연맹권의 축소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그 시기는 문헌사료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다고 생각되는 신라 奈勿·實聖·訥祗麻立干代 즉 4세기 중엽에서 5세

9)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10년 5월.

기 초에 걸치는 시기였으리라고 추정된다. 특히 전기 가야연맹의 일국이었던 瀆盧國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동래지방이나 6가야와 관련하여 그 연맹권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거론되는 창녕·성주지방의 고분군에서 5세기 이후로 신라 계통 일색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은 가야연맹권의 축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영남지방 석곽묘관계 유적·유물을 묘제와 토기를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신라문화의 특징은 묘제의 측면에서 積石木槨墳·橫口式 石槨墓·橫穴式 石室墓·豎穴式 石槨墓(짧은 장방형 평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토기양식은 二段交列透窓有蓋高杯와 臺附長頸壺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진변한 공동 문화기반에서 일단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한 문화를 공통적으로 보유한 신라 영역은 대체로 낙동강 동안의 경상좌도지역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의성·안동·경산·대구·칠곡·성주·선산 등의 신라 북부지역과 창녕·울산·양산·부산 등의 신라 남부지역으로 구분된다.

가야문화의 특징은 묘제의 측면에서 좁고 긴 장방형 평면의 수혈식 석곽묘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토기양식은 이단직렬투창유개고배와 有蓋長頸壺·器臺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후기 가야문화가 前代 이래 진변한 공동의 문화전통을 거의 그대로 계승 발전한 측면을 보여 준다. 그러한 문화를 공통적으로 보유한 가야 영역은 대체로 낙동강 서안의 경상우도지역이며, 세부적으로는 고령을 중심으로 하여 함천·거창·함양 및 남원 동부 등의 가야 북부지역과 함안·고성·사천·진주·산청·하동·김해·창원 등의 가야 남부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후기 가야 문화권을 전기 가야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문화 성격은 그리 변하지 않았으나, 문화 중심은 김해를 비롯한 경남 해안지대에서 고령을 비롯한 경상 내륙 산간지방으로 옮겨 왔으며, 문화권은 고령 이남의 낙

10) 金泰植, <가야사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韓國古代史論叢》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1), 49~75쪽 참조.

동강 서안지방으로 축소되어, 전기 가야연맹에 속해 있다고 거론되던 지역 중에서 동래·창녕·성주·개령 등이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중심의 이동과 영역의 축소 현상은 전기 가야연맹의 해체를 전후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다고 하겠다.

위에서 고고학자료에 의하여 구분된 5~6세기 가야문화권의 범위는 문헌 사료를 통하여 추정되는 후기 가야의 세력범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 보자. 당시 가야의 세력범위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로는 《일본서기》가 있다. 《일본서기》欽明紀 23년(562)조에 「任那 10國」 즉 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이 나오고, 同 2년(541) 4월조에는 530년대에 이미 멸망한 喙己吞·南加羅·卓淳의 3국이 나온다. 그러므로 한동안 가야지역에 속하였다가 6세기 초에 백제에게 빼앗긴 상·하기문국(남원·임실 등)을 제외하더라도 6세기 전반의 가야지역에는 13소국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지명 비정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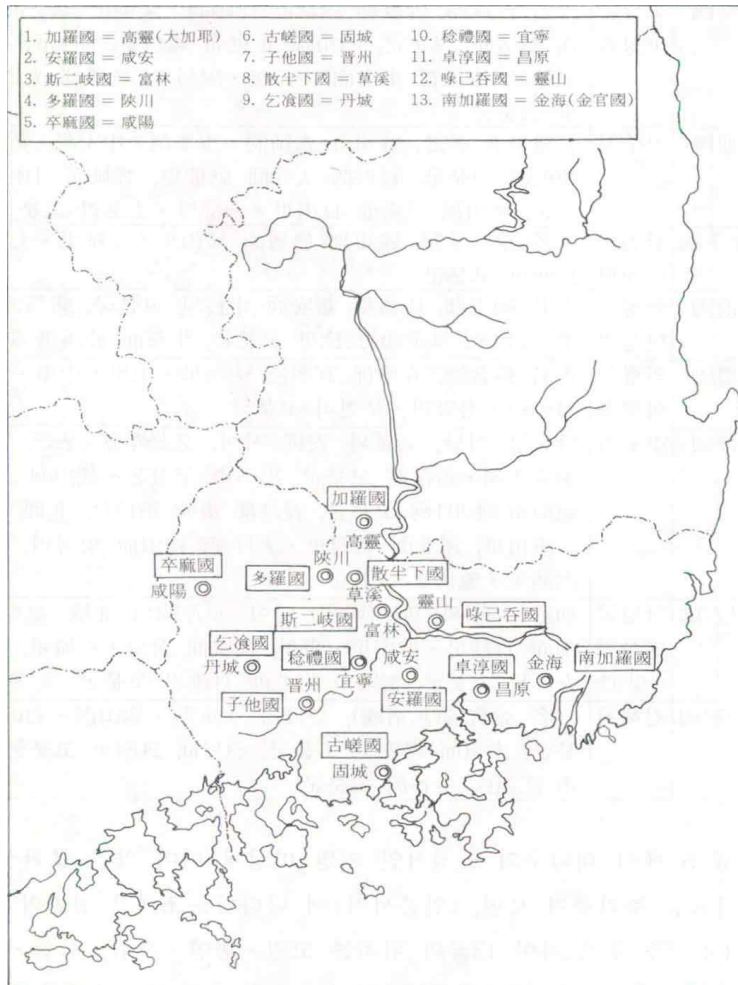
〈표 5〉 후기 가야 13국의 위치비정표

번호	국 명	위 치	근 거
1	加羅國	고령군 고령읍	古名 大加耶國, 高靈郡 高靈邑 池山里·古衙里·本館里·快賓里·中和里·錦山, 雲水面 月山里, 雙林面 高谷里·龍里, 德谷面 後岩里 高분군, 谷面 桃津里 高분군, 陝川郡 治爐面 金坪里 高분군
2	安羅國	함안군 가야읍	古名 阿尸良國, 咸安郡 伽倻邑 末山里·道項里·沙內里·新音里 高분군, 郡北面 院北里·沙道里 高분군, 宜寧郡 宜寧邑 西洞·中里·上里, 嘉面 鳳頭里 高분군
3	斯二岐國	의령군 부림면	古名 辛爾縣, 宜寧郡 富林面 新反里·景山里 高분군, 正谷面 竹田里, 芝正面 柳谷里 高분군
4	多羅國	합천군 합천읍	古名 大良州郡, 陝川郡 陝川邑 陝川里·盈倉里, 龍洲面 城山里·高品里·龍旨里, 栗谷面 文林里, 大陽面 正陽里 高분군, 大井面 倉里, 鳳山面 苧浦里·鳳溪里·界山里·松林里 高분군
5	卒麻國	함양군 함양읍	문헌고증 불능, 咸陽郡 咸陽邑 白川里, 水東面 院坪里·上栢里 高분군, 南原郡 阿英面 月山里·清溪里, 東面 乾芝里 高분군

번호	국 명	위 치	근 거
6	古嵯國	고성군 고성읍	古名 古自郡, 固城郡 固城邑 松鶴洞・栗垈里 高분군, 下一面 梧芳里 高분군, 泗川郡 正東面 禮樹里, 龍見面 松旨里 高분군, 固城郡 東海面 內山里・陽村里, 統營郡 光道面 黃里 高분군
7	子他國	진주시	문헌고증 불능, 晉州市 水精洞・玉峯洞・中安洞・新安洞・加佐洞 高분군, 晉陽郡 大谷面 臥龍里, 晉城面 中村里 高분군, 陝川郡 三嘉面 良田里・一部里・소오리 高분군
8	散半下國	함천군 초계면	古名 草八兮縣, 陝川郡 雙冊面 城山里・多羅里・上浦里・烏西里 高분군
9	乞浪國	산청군 단성면	古名 闕支郡, 山淸郡 新安面 中村里 高분군, 新等面 丹溪里 高분군, 車黃面 長位里 高분군, 生草面 於西里 高분군
10	稔禮國	의령군 의령읍	古名 獐含縣, 宜寧郡 宜寧邑 中洞里・上里・中里・下里・서동리・정암리・무전리 高분군
11	卓淳國	창원시	낙동강 이남, 新羅와 安羅 사이, 久斯牟羅 부근, 昌原市 加音丁洞・道溪洞 高분군, 馬山市 구암동・茲山洞 高분군, 鎭海市 熊川1洞 高분군, 義昌郡 東面 茶戶里, 北面 花川里・東田里, 鎭北面 新村里・大坪里, 鎭田面 임곡리, 龜山面 內浦里・龜伏里 高분군
12	喙己吞國	창녕군 영산면 (+밀양?)	加羅(高靈)와 新羅(慶州) 사이, 卓淳國의 北境, 昌寧郡 靈山面 竹紗里・城內里・東里, 桂城面 舍里・桂城里, 都泉面 友江里 高분군, 密陽市 府北面 月山里 高분군
13	南加羅國	김해시	古名 金官國(駕洛國), 金海市 大成洞・龜山洞・七山洞 高분군, 大東面 禮安里 高분군, 酒村面 良洞里 高분군, 釜山市 江西區 生谷洞 高분군

위의 <표 5>에서 대다수의 안정적인 지명 비정에 이어 약간 불확실한 임례국·졸마국을 추가하여 보면,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6세기 전반의 이른바 「임나 13국」 즉 후기 가야 13국의 위치는 고령·함안·부림·함천·함양·고성·진주·초계·단성·의령·창원·영산·김해 등지에 비정되어, 크게 보아 고령 이남의 낙동강 서안지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본 5~6세기 무렵의 고고학적 유물·유적에 의한 가야문화권 범위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며, 임나와 관련하여 가야영역을 과대평가하였던 기존설에 비해 어느 정도 그 범위의 축소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도면 2> 참조).

〈도면 2〉 후기 가야 13국 위치비정도



〈金泰植〉

## 2. 가야연맹의 약화

5~6세기의 후기 가야연맹 남부지역은 문화유물면에서 구분되어, 진주·사천·고성·함안 등의 서남부지역과 창원·김해·밀양 등의 동남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가야 서남부지역은 독자적인 문화기반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동남부지역은 일단 5세기 초 이후 신라세력권 아래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중엽·후반 이후 두 지역 모두에 대하여 고령 대가야의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이들은 일단의 세력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대가야에 복속되었다거나 완전 동조를 하였던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 특히 가야 동남부지역은 고유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시기에 따라 대가야·신라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야 남부지역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이들이 가야지역 중에서도 먼저 소멸하게 되는 배경을 짐작케 한다.

### 1) 탁기탄국의 신라 투항

520년대의 가야 주변 국제정세는 심상치 않아서 백제는 무령왕 후반기에 들어 변경의 소규모 전투에서나마 고구려를 연속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할 정도였고, 신라는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는 등 국가체제 정비면에서 가야연맹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다. 특히 백제는 한편으로는 왜와의 교역을 트고, 한편으로는 중국 남조梁과의 교역을 재개하면서 신라를 이에 동행시키는 등 국제교역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대가야는 연맹 결성 이후 영역을 팽창하는 중에 백제와 대립되어, 백제는 가야를 사이에 두지 않고 직접 왜와 교역하기를 모색하였으므로 가야연맹은 백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국제질서에서 소외되었다. 백제가 가야지역내에서 마음대로 왜와 교역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가야연맹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가야는 이를 군사력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교역상의 고립이란 심각한 문제였다. 백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한 대가야는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신라와 우의를 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가야는 신라와의 결혼동맹을 추구하여 522년에 고령 대가야의 異腦王이 신라에 청혼하자 법흥왕이 伊滄 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보내 주어 결혼이 성립되었다.<sup>1)</sup> 비조부가 신라왕실에서 어떤 계보에 속하는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골 이상만이 가질 수 있는 벼슬인 이찬의 관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왕족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당시의 신라는 미숙하나마 고대국가 체제를 완비하여 정복전쟁 및 영토확장의 잠재력을 갖춘 상태였으나, 조금 앞서 있다고는 해도 가야연맹을 일시에 함락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비하여 백제와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쉽사리 가야지역에 대한 정복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가야에서 청혼이 들어오자 이를 통합의 좋은 계기로 보고 수락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가야·신라 사이의 동맹관계는 얼마동안 우호적으로 지속된 듯하다. 그리하여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대가야에 시집온 신라왕녀는 아들 月光太子를 낳았으며, 결혼 2년 후인 524년에는 신라국왕이 남쪽 경계를 돌아보며 땅을 개척하는데 가야국왕이 와서 만나기도 하였다.<sup>2)</sup> 이는 당시 가야연맹의 대표세력인 고령 대가야의 왕이 신라 법흥왕과 마차해(삼랑진)·추봉(밀양) 방면에서 만나서 영토의 경계를 상호 확인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회담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합의가 되었는지 그 직후 별다른 분쟁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 가야·신라 사이에는 결혼동맹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100명의 종자를 함께 딸려 보냈는데, 대가야왕은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신라왕실과 결혼관계를 맺은 것을 널리 과시하기 위해 그녀의 종자들을 각 지방에 흩어 두었다. 그러나 몇 년 후인지는 분

1)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9년.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9, 高靈縣 建置沿革 所引 釋順應傳.

2)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1년 9월.

명치 않으나 신라측에서는 비밀리에 그녀의 종자들에게 신라의 의관을 입도록 하여 오히려 신라의 정치적 위엄을 과시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가야연맹 소속의 국가들은 대가야왕이 신라측에 굴종적인 밀약을 맺지 않았는가 의심을 품고, 그 중 하나인 탁순국(창원)의 阿利斯等이 대가야왕의 허락없이 자신의 고유직권으로 자기 지역내에 있던 종자들을 신라로 쫓아버리고 말았다.<sup>3)</sup>

그러자 신라측에서는 이를 트집잡아 대가야에게 결혼동맹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가야왕 己富利知伽는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여 동맹 자체를 폐기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결국 대가야는 이 분쟁을 떠맡아 해결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연맹 소속국인 탁순국에게 전가시킨 셈이 되었으며, 이는 신라가 탁순을 문책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신라는 탁순을 문책하러 가는 길에 刀伽·古跋·布那牟羅(모두 지명 미상)의 세 성과 탁순 북쪽 변경의 다섯 성을 함락시켰는데, 이는 곧 창원 북쪽지역과 낙동강 건너편의 영산 또는 밀양지방의 몇몇 성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 결과 가야 소국의 하나로서 유일하게 낙동강 동안에 있으면서 신라와 경계를 접하고 있던 喙己吞國(영산·밀양)은 신라의 공격 및 위압에 놀려 멸망하였다.

탁기탄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훗날 백제 성왕은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다. 첫번째로는 탁기탄은 위치가 대가야와 신라의 접경에 있어서 늘 공격을 당하는데 임나 즉 가야연맹이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였다. 두번째로는 喙國의 函跋旱岐가 대가야에 두 마음을 품어서 신라에 내놓은 것이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4)</sup> 즉 탁기탄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 신라의 힘에 눌리고 또 대가야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신라에 내놓아서 쉽사리 멸망한 것을 짐작케 하며, 이는 앞에 서술한 상황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되는 바이다. 그리하여 탁기탄국은 후기 가야연맹내에서 신라에게 가장 먼저 멸망당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멸망 연대는 대략 529년을 전후한 2, 3년간의

3)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23년 3월. 卓淳國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金泰植,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韓國古代史研究》1, 1988), 192~205쪽 참조.

4)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2년 4월 및 5년 3월.



어느 시기로 추정된다.

이로써 신라의 법흥왕은 애초의 결혼동맹 당시부터의 가야지역 병합 목표를 1단계 성공시킨 셈이 되었고, 대가야는 결혼동맹으로 인한 신라의 술책에 빠져 탁기탄국을 상실하였다. 가야연맹은 그 동남부지역 국가들의 멸망 또는 이탈로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이 신라에 내용하여 쉽사리 병합되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이 지역이 5세기 이후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신라문화권에 복합되어 있었다가 5세기 후반 이후에 대가야 계통의 문물이 복합되어 나타났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2) 백제의 안라 결탁성 진주

앞에서 본 것처럼 탁순국이 신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타격을 입고 탁기탄국이 신라에 병합되자, 가야연맹내의 남부 제국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한 고령의 대가야를 불신하게 되어, 자구책으로 자체내의 단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는 그 지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함안의 안라국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은 진주·사천·고성·함안·산청·하동 등의 가야 서남부지역의 고분출토 유물에서 엿보이는 문화적 공통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단결을 주도한 안라는 우선 새로 높은 건물[高堂]을 지어서 새로운 정치적 합의체의 맹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백제·신라·왜 등의 사신을 초빙하여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sup>5)</sup> 이 안라회의의 명분은 탁기탄을 멸망시킨 신라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해 그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실질적인 목적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가야 남부 제국내에서 안라의 맹주로서의 위치를 고착시키고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야 남부 제국 중에서 안라의 뜻에 동조하는 소국들로부터 대표자들이 먼저 와서 안라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가 개최되자 전통적으로 가야 남부지역을 통해 교역하던 왜의

5)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23년 3월.

한 세력으로부터 한 사신이 왔으며, 그가 近江毛野臣이라고 인식되는 자였다. 그들은 親安羅의인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그들의 대외적인 후원을 백제와 신라에게 과시하려던 안라측의 요청에 의하여 상당한 수행병력도 거느리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당시에 신라와는 교빙관계에 있었으나, 가야지역의 대표세력인 대가야와는 대왜 무역경쟁 이후로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탁기탄국을 함락시키고 가야 제국이 분열을 일으키는 상태를 중시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聖王은 佐平級의 고위관직자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안라 등의 가야 남부 제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신라는 탁기탄의 병합이 그의 자발적인 내용에 의한 편입이었다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친신라적인 성향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야를 그대로 가야지역의 대표자로 공식 인정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는 이 안라회의 자체에 대하여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의례적으로 奈麻級의 외교사절을 파견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자기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던 백제의 의도는 안라의 자주적인 태도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오히려 안라의 친왜정책에 대해 깊은 소외감과 우려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대가야와의 투쟁에 의해 획득해낸 대왜교역상의 주도권을 안라에 의해 다시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는 안라의 자주적이고 친왜적인 성향을 주목하다가 결국은 비상수단을 써서 군사력으로 이를 저지하려 한 듯하다. 당시 백제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일본서기》繼體紀 25년 12월조의 細注에 인용된 《백제본기》소재의 기사가 있다.

太歲 辛亥 3월 군대가 나아가 安羅에 이르러 乞毛城을 영위하였다. 이 달에 高麗가 그 王 安을 시해하였다. 또 들건대 일본천황과 태자·皇子가 모두 흥거하였다고 한다.

윗 글에서 《백제본기》의 紀年에 의한 신해년은 531년에 해당하는데, 이 해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安藏王 崩年과도 일치하므로, 그 편년은 체계기의 일반 연대와는 달리 그대로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천

황과 태자·황자가 모두 죽었다는 것이 반드시 大和國에서의 사건인지 아니면 북구주 등 다른 지역에서의 사건인지는 확정지을 수 없으나 어쨌든 왜지 내에서 어떤 중대한 변고가 있었음은 틀림없다.

이러한 사료고증을 전제로 하면서 위의 기사를 해석해 보건대, 백제는 531년 당시에 고구려가 내부 정변을 겪고 있는 와중이므로 북방의 변경을 침공할 우려가 없고 왜지에서도 어떤 중대 변고가 일어나 외부에의 개입을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안라로 침공해 들어가서 결탁성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백제는 남방 경영을 거의 마무리지어 전남 섬진강 하구까지 직접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부터 강을 건너 하동으로 상륙하여 진주 남강의 남안을 거쳐 함안까지 진공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여기서 결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라 즉 함안의 인근에 있는 성임은 틀림없겠다.

이러한 백제의 치밀한 공격을 받게 되자, 毛野臣 등의 倭使 일행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쫓겨나고 말았고, 안라 및 그 서남부의 가야 소국들은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백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신라와 같은 군현 편제에 의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在地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내부에 백제의 군사적 거점을 일부 확보해 놓는 과도적·간접적 통제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안라 以西의 가야 서남부 지역은 백제의 일정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그 소국들이 멸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주권의 일부는 백제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라 하겠다.

### 3) 남가라국(금관국)의 신라 투항

탁기탄이 신라에 병합되고 안라에 백제군이 진주해 들어와서 이제 가야 남부지역에서 독립세력은 낙동강 하구 부근의 남가라와 탁순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이후 자체내의 결집을 통하여 힘으로 자기를 보존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지역이 대왜교역상의 요충지라는 점을 빌미로 하여 자기 지배체제를 보존시키려고 하였던 듯하다.

그리하여 탁순국왕 아리사등 즉 己能末多干岐는 백제·신라 양쪽으로부터

의 침공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가 자기 지역에 가까이 와 있던 모야신을 중재인 자격으로 두고, 신라·백제왕에게 탁순·남가라지역을 일종의 비무장지대로 인정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국에서 모두 상위 관직자를 보내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미 백제는 안라로부터 그 서쪽에 대한 견제력을 지니고 있었고 신라는 백제의 그러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이 지역에 대한 평화협정 정도로는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곧이어 신라는 중요한 해운기지인 김해지역까지 백제나 왜의 영향에 휩쓸릴 것을 경계하여 서둘러 上臣 伊叱夫禮智干岐 즉 異斯夫를 파견하였으며, 그는 3천 병사를 이끌고 多多羅原(다대포)에 주둔하면서 군사적 시위를 하였다. 신라가 거기서 석달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것은 그의 남가라 침공에 대한 가야·백제·왜 등의 태도를 살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동안 백제나 가야나 왜로부터 이의제기나 적극적인 간섭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신라는 낙동강을 건너 서서히 공략을 전개하여 고령무원의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 4村을 함락시켰고, 그 와중에 신라에 투항한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원을 신라영토내로 옮겨 놓았다.<sup>6)</sup> 이 때 함락된 4촌 가운데 다다라(安多)는 다대포, 수나라(金官)는 김해, 비지(背伐)는 웅천 부근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南加羅國 즉 金官國은 멸망한 것이라고 하겠다. 남가라국의 멸망 연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삼국사기》신라본기 범흥왕 19년의 紀年을 따라 532년으로 보는 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남가라국 즉 금관국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사료별로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의문점이 남으므로 이를 고찰해 보자. 우선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따르면, 金官國主 金仇亥는 보물을 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항복하였으므로 신라가 이를 예우하여 上等의 位 즉 眞骨로 삼았으며 본국으로 食邑을 삼게하였다고 되어 있다. 둘째로 《삼국유사》소재 《가락국기》에 의하면, 신라 眞興王이 군대를 일으켜 다가와서 쳤는데 仇衡王은 인원부족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서 王子·上孫과 함께 항복하여 신라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6)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23년 4월.

셋째로 《일본서기》계제기에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신라 上臣 이사부가 남가라 4촌을 정벌하고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으며, 흠명기에 나오는 성왕의 언급에 의하면 남가라는 작고 협소하여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의탁할 곳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였다.<sup>7)</sup>

이를 종합해 볼 때 신라가 군대로 금관국 즉 남가라국을 정벌한 것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틀림없으며, 남가라는 어느 정도 대항하다가 항복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신라가 작고 협소한 나라일 뿐인 남가라국 왕손에게 진골의 신분을 사여한 것은 그들을 신라왕족과 대등한 수준의 가야연맹 맹주국의 왕족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신라가 훗날 가야전역을 병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이라 하겠으며, 대가야의 맹주권을 부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삼국사기》地理志 金官小京條에 의하면 신라는 금관국을 금관군으로 편제하였다.

#### 4) 백제의 구례모라성 축성과 안라 경영

기능말다간기가 倭使 모야신을 중재인으로 삼아 웅천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김해·창원일대의 국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을 때, 모야신은 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백제·신라에게 의구심만 안겨 주었으며, 신라의 남가라 침공에 대해서도 물러나 관찰만 하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창원의 탁순국은 모야신이 왜지에서의 대표성도 없고 문제해결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쫓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모야신은 久斯牟羅(창원)에 두 해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곳에 자기 세력을 부식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탁순국 아리사등은 이번에는 왜인 사신을 제외시키고 탁순·백제·신라의 3자협정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여, 신라·백제에 각기 사신을 보내 왜세력 배척의 명분으로 약간의 군사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라의 곁탁성까지 진주해 있던 백제가 선수를 쳐서 背評(위치 미상)에서 모야신을 공격하였으며, 모야

7)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2년 4월.

신은 여기서 패배하여 다시 구사모라로 쫓겨 들어왔다.<sup>8)</sup>

백제는 이 기회에 탁순국까지 점령하여 신라에게 선점당한 해운교역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탁순국 자체를 공격하여 그 북방의 久禮牟羅(칠원)에 성을 쌓아 군대를 주둔시키고 철군을 하였다. 그리고 그 곳까지의 통로를 확보하면서 신라로부터의 반격에 대비하고자 그 근처의 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등 5성을 함락시켰다. 그 결과는 탁순국 자체의 멸망이 아니라 그 주변 요지인 久禮山 5성에 대한 백제의 축성과 군대 주둔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라에서의 경우처럼 백제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제는 일단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터전으로 삼아 탁순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야 서남부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신라의 진출을 일단 억제한 백제는 530년대 후반의 어느 시기에 안라에 친백제 왜인관료 印岐彌를 파견하여 이른바 「任那日本府」 즉 「安羅倭臣館」을 설치하였다.<sup>9)</sup> 백제는 아마도 자기 나라에 온 왜국사절인 인기미를 포섭하여 왜에 가까운 안라의 館舍에 주재케 한다는 명분으로 일을 추진하였으되, 그에게 맡긴 직무는 백제와 왜왕조 사이의 통상적인 교역의 대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백제는 성왕 12년(534)에 구례모라성(구례산 5성)을 축조하여 탁순에 압력을 넣을 수 있게 된 계기를 맞이하여, 5세기 후반 이래의 대왜교섭 부진을 만회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당시 화친관계에 있던 신라나 해당 지역에 있는 가야 제국으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백제는 가야연맹 남부 제국의 새로운 영도자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는 안라에 친백제계 왜인들이 상주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매개로 하여 대왜교섭에 유리한 卓淳路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다. 그것이 백제가 안라에 인기미를 파견한 이유이고, 그 시기는 백제의 가야 남부지역 공략이 일단 완료된 성왕 12년(534) 이후 그리 멀지 않은 때였을 것이다.

한편 백제의 구상은 안라를 비롯한 가야연맹제국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

8) 이 해에 毛野臣은 倭使는 倭地로 돌아가는 도중 對馬島에서 죽었다고 한다(《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24년 是歲).

9)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5년 3월 및 11월.

이라고 보이므로, 안라를 비롯한 가야 남부 제국과 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와 같은 구상이 그리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라 동쪽의 구례모라성에 백제군대가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보아 안라는 백제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왜국과는 거의 무관하게 백제의 의도와 안라의 부응에 의하여 안라왜신관이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성립 당시의 안라왜신관은 안라에 위치하는 왜국사절 주재관의 명분을 지니되 실제적으로는 친백제계 왜인들로 구성된 백제·왜 사이의 교역기관, 다시 말하자면 「백제의 대왜무역 중개소」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럼으로써 백제는 안라·탁순을 거쳐 왜로 통하는 교역로를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러한 교역을 빌미로 하여 신라와의 마찰을 피하고 가야지역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백제에 가까운 지역인 「任那之下韓」에 郡守·城主를 파견하여 행정구역화해 나갔다. 여기서 임나의 하한이란 경남 서남부지역의 하동·산청·함양 일대에 해당하며, 군령·성주의 성격은 백제의 지방 군현을 통치하는 지방관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후기 가야의 남부지역 소국들은 백제·신라의 분할 점령으로 인하여 거의 소멸되었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신라에게 병합된 가야 동남부지역의 탁기탄·남가라는 그 자립성을 잃고 군현으로 편제된 것에 비하여, 백제에게 점령당한 가야 서남부지역의 구례모라성 서쪽의 소국들은 자립성을 보유한 채로 백제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그 상태에서 백제는 가까운 하동·함양·산청 등지를 서서히 행정구역화해 나가고 있었다.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연맹은 5세기 후반 이후 6세기 초에 걸쳐서 세력을 떨치며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아직 그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6세기 전반에 들어와 그보다 고대국가 성장도가 우월한 백제·신라의 조직적인 침투에 의하여 분열되어 그 남부 제국을 잃었다. 그 결과 후기 가야연맹은 남부지역의 영토 및 주권이 축소되는 과정 중에 약화되어서 「가야」로서의 통합 움직임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만 것이다.

〈金泰植〉

### 3. 가야의 멸망

6세기 중엽의 가야지역은 전반적으로 묘제 및 토기유물 등의 면에서 앞 시대 이래의 문화기반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속하였다. 다만 고령·거창·함천 등 주로 대가야문화권은 그에 대한 추가 요소로서 횡혈식 석실분 및 三足土器 등 백제 문물의 요소들이 약간 나타났다. 반면에 함안·고성·사천 등의 가야 서남부지역은 여전히 기존의 문화기반을 유지·발전시킬 뿐 상대적으로 백제 문물의 영향이 희박하였다. 또한 후기 가야지역의 고분군 중에서 개개의 봉분 및 고분군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고령 지산리 고분군과 咸安 末山里 고분군이다. 이러한 고분 분포상황은 고령과 함안의 지배세력들이 가야 말기에 문화성격이 서로 구별되는 가야 북부 및 남부지역의 중심세력이었을 것을 추정케 한다.

#### 1) 대가야·안라 이원체제로의 분열

가야 남부 諸國이 소멸과정을 밟는 530년대에 고령의 대가야국을 비롯한 가야 북부 제국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가 전혀 없어서 알기 어렵다. 다만 《일본서기》흥명기의 여러 가지 기록에 다시 「가라」 등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가야 북부 제국은 자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제·신라로부터의 개입을 막아낼 수는 있었으나, 그 남부 제국이 신라·백제라는 외세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을 막아줄 만한 여력 또는 통합력을 아직 가지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백제·신라의 일차적 침공방향이 일단 해운기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어서 가야 북부 제국은 그 적극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한편 탁순국은 가야 남부지역의 유일한 독립지대였지만 그 북부의 구례산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백제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일부 백제에 부응하는 귀족세력도 생겨난 듯하다. 그러던 중 백제가 내부적



인 요인으로 대외적인 관심이 흐트러져 있을 때 창원의 탁순국은 신라에 투항하였다. 탁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훗날 백제 성왕이 언급하기를, 탁순은 상하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결국 탁순국주가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해서 신라에 내응하여 신라도적을 불러들인 것이 주 요인이었다고 하였다.<sup>1)</sup> 그러므로 탁순국왕은 신라측으로부터 정치적 제의를 받고 「도적」 즉 신라군을 불러들여 附百濟輩를 소탕함으로써 스스로 신라에 편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탁순국이 신라에게 멸망된 시기는 백제가 구례모라에 축성한 534년 이후부터 성왕의 탁순국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541년 이전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되, 백제가 사비 천도 등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538년 직후의 어느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라는 탁순국 병합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구례산성에 주둔해 있던 백제군사를 물리쳐 쫓아냈다.<sup>2)</sup> 이로써 신라는 탁순국의 영유를 확고히 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백제는 가야 병합을 위한 전진기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자 백제가 함안의 안라국에 설치하였던 倭臣館도 그 무력적 배경을 잃어버려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이에 안라는 백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왜신관의 인원을 친안라 왜인관료들로 재편성함으로써 그 기구를 장악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 안라가 왜국과 어느 정도의 연관을 맺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결과 540년대의 「在安羅諸倭臣」 즉 안라왜신관의 관료는 안라가 왜와의 연관 아래 또는 독자적으로 임명한 왜인인 的臣(卿)·吉備臣(執事)·河內直과 백제가 임의로 파견한 왜신인 印支彌·許勢臣, 안라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야계 왜인인 移那斯·麻都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안라왕은 실제적으로 이나사·마도 등을 통하여 안라왜신관을 지휘 운영하여, 눈앞의 구례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신라와 교통케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즉 안라왕은 이를 가야연맹 제국이 신라와 백제로부터의 외부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막이로 활용하였고, 그런 과정 중에 가야연맹내에서 안라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1)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2년 4월 및 5년 3월.

2)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5년 3월의 聖王 회고담.

그러므로 그 후의 안라왜신관은 대외적으로는 성립 당시와 같이 왜국사절 주재관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되, 실제적으로는 안라왕의 지휘를 받아 안라를 비롯한 가야연맹 제국의 독립 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교지원기관 즉 「안라의 특수외무관서」로 변질되었다고 하겠다. 그러한 성격의 기구를 「임나일본부」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치 않으며, 안라에 위치하고 안라가 운영하는 왜인관료 주재관이라는 뜻에서 「안라왜신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안라는 그 후 세력을 주변의 가야 남부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북부의 대가야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중심세력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

가야 남부지역에 안라국이 주도하는 자주적 성격의 연맹 주체가 형성되자, 백제는 가야지역의 최대세력인 대가야와 그에 동조하는 가야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포섭코자 일단의 문물공세를 편 듯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야 북부의 대가야측 소국들은 신라의 배반과 남부지역 안라측 소국의 독립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쉽사리 친백제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졌으며, 고령·거창·합천 등 대가야문화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백제문물의 요소는 그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제 안라는 왜국과의 친분을 내세움으로써 백제에 대하여 좀더 독자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대가야에 못지 않는 가야연맹 중심세력의 하나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안라의 대두로 말미암아 이제 가야연맹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명실상부하게 대가야·안라 이원체제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sup>3)</sup>

## 2) 가야연맹의 자구노력과 백제 부용화

540년대 당시의 신라는 진흥왕이 즉위하여 제도 정비와 함께 팽창을 도모하고 있었고, 백제도 성왕이 사비 천도 이후 중흥을 모색하고 있었다. 신라와 백제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대응태세를 채 갖추지 못한 가야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북방의 강국인 고구

3) 金泰植, <6세기 중엽 加耶의 멸망에 대한 연구> (《韓國古代史論叢》 4, 1992).

려의 남하정책에 함께 대항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가야지역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즉각적인 무력 충돌을 벌일 수는 없었다.

반면에 가야연맹은 내부적으로는 10개 정도의 소국들이 대가야 및 안라를 중심한 남북의 이원체제로 갈라져 있었으나 대외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가야연맹은 신라와 백제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공동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야연맹은 우선 두세 차례나 신라에게 회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백제에게 요청했는데, 가야의 회의 요청이 백제의 이해관계와도 합치하는 바가 있어서 둘 사이에 외교 교섭이 이루어졌다.

541년 4월에 안라·가라·졸마·산반해·다라·사이기·자타 등 가야지역 7개 소국의 한기들과 안라왜신관 관리, 즉 가야연맹을 대표하는 사신단이 백제에 모였다.<sup>4)</sup> 여기서 회의장소인 「백제」는 곧 천도 직후의 새로운 수도인 泗泚의 王庭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일단 이 회의를 제1차 사비회의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야연맹의 사신단은 자신들의 독립보장 및 백제와 화친하게 될 때 예상되는 신라의 공격에 대한 방비책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제는 자신들이 왜로부터 임나 건립을 위임받았음을 주장하고, 만일 신라가 쳐들어오면 자신이 가서 구해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물건들을 줄 뿐이었다. 백제는 안이한 자세로 신라보다 먼저 가야연맹 제국을 부용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가야연맹 제국은 백제로부터 군령·성주 축출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가야의 독립 보장도 불철저한 백제와의 제1차 교섭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곧바로 신라와 재접촉을 시도하였다. 신라와의 교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제1차 사비회의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가야·백제 사이의 제1차 교섭은 상호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쟁점화되지 못하고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그 후 안라와 백제는 외교를 자기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각기 제3

4)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2년 4월.

자인 왜국에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 듯하다. 이에 대해 왜의 사신이 543년 11월에 한반도에 와서 안라왜신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왜국은 임나의 하한에 들어와 있는 백제 군령·성주를 왜신관 즉 안라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왜측이 안라 및 가야연맹 전체에 유리한 국서를 백제에게 전달한 것은 왜신관을 지휘하는 안라의 외교활동이 성공한 결과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백제는 이 사태의 주모자가 안라에 있는 왜신관 관리들 중 하내직·이나사·마도 등임을 알고, 그들을 외교적 압력으로 쫓아내려고 하였다. 즉 가야연맹 제국 및 왜와의 대외적 협조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왜를 이용한 독자노선 추진집단을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백제가 가야연맹과의 제2차 사비회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야연맹은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백제의 독촉이 급해지자 倭臣館卿 또는 왜왕의 동의를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백제는 이제 임나건립을 위하여 실지로 왜를 끌어들여 자신의 우방으로 만들고 이를 가야측에 입증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백제는 왜에 사신을 보내 대임나정책 실패의 모든 원인인 왜신관의 인원들 중 일부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왜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무응답이란 보류 또는 무관함의 표시이다. 왜는 안라를 통하여 신라 및 백제 어느 쪽과 교역하는 것이 유리한지 선불리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것은 실상 중개역인 안라의 의사에 달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백제는 왜에 갔던 사신이 돌아온 것을 빙자하여 즉시 가야연맹과의 제2차 사비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번에는 가야연맹 집사들이 별다른 구실을 찾지 못한 채 그에 응함으로써 회의가 성립되어, 544년 11월에 안라·가라·줄마·사이기·산반해·다라·자타·구차 등 8국의 대표들과 왜신관 관리가 백제에 갔다.<sup>5)</sup> 제2차 사비회의에 임하는 가야연맹 집사들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었는데, 이는 백제의 가야 부용화 방안을 대체로 짐작하기 때문이었다.

5)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5년 11월.

반면에 백제 성왕은 이 회의에서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① 임나 보호를 위하여 왜군사를 요청하는 문제, ② 군령·성주를 내보낼 수 없다는 변명, ③ 길비신·하내직·이나사·마도 등을 本處로 송환하는 문제 등 지금까지 백제가 제시하였던 것들과 같은 취지의 것이지만 기존의 주장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었다. 우선 첫번째 계책에서 백제는 임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안 안라국 동북방의 낙동강변에 6성을 쌓고, 그 곳에 왜의 3,000 병사와 백제군을 함께 주둔케 하되 그 비용은 백제가 부담한다고 하였다. 즉 백제는 그 6성을 왜 및 가야연맹의 협조 아래 경영하고, 그 대외적 명분을 바탕으로 신라군을 공략하여 530년대 후반에 빼앗긴 칠원의 구례산 5성을 회복하며 아울러 탁순로를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백제의 첫번째 계책에 대해서 가야연맹 제국도 그 정도면 타협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제의 그 계획에 의하면 신라의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백제의 가야에 대한 독점적인 성격도 상당히 희석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백제의 두번째 및 세번째 계책에 있었다. 가야인의 눈으로 볼 때 가야지역 일부에 대한 백제의 군령·성주 설치의 강권에 의한 영토 침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백제의 침탈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길비신 등의 本邑 송환 요구는 안라 중심의 독자세력 추진집단인 안라왜신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가야지역내에 친백제세력을 부식시키는 데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성왕의 3책 제안에 대하여 가야연맹 집사들은 최종 답변을 「일본대신」 및 안라왕·가라왕의 3인에게 미루었다. 여기서 가야연맹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안라왕·가라왕의 존재가 확인된다. 다만 여기서 「일본대신」은 임나에 있는 왜신관의 대신 즉 的臣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는 가야지역내에서 안라왕의 권력 및 대표성을 보완해 주는 간관에 지나지 않는다. 가야연맹 집사들이 최종 답변을 그들 3인에게 미룬 것은 백제의 세 가지 계책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었다. 결국 이로써 가야연맹과 백제 사이의 제2차 사비 회의는 결렬되었다. 가야·백제·왜 사이의 논의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되는 중에 각국 사이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그들이 합치할 수

없음은 이제 확인된 것이다.

가야·백제 사이의 제2차 사비회의 결렬 이후 국제정세는 큰 변화가 없어서, 고구려에 대항하여 신라·백제간의 우호가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백제는 왜 및 가야에 대한 지속적인 문물 공급 및 인원 파견을 함으로써, 그 댓가로 가야지역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계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던 듯하다. 즉 백제는 聖王 23년(545)부터 25년까지의 사이에 가야연맹 제국의 세력가들에게 선진문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왜에 방물을 주거나 기술자 또는 학자 등을 연이어 파견하기도 하였다.<sup>6)</sup> 그에 대한 화답으로 왜는 말 70필과 배 10척을 보내 백제와의 교역 선호 의사를 표명하였고, 결국은 성왕 26년 정월에 왜 병사를 보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백제의 세 가지 계책 중 하나가 왜와의 동조 아래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하여 안라국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장군이 지휘하는 백제·왜연합군이 안라 부근의 6성에 주둔하게 되면, 안라의 자주적 태세의 안경관 역할을 하는 안라왜신관의 인원 구성에 대하여 백제의 압력이 강화되고, 이는 곧 안라국이 백제 부용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야지역 일부 세력들은 백제의 거둬드는 선진문물 증여에 의하여 차츰 경계심이 이완되다가 결국 친백제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라는 대항체제를 다시 정비할 여유를 얻기 위하여 고구려에게 백제 정벌을 요청하였다.

얼마 후 548년 정월에 고구려가 濊兵 6천을 보내 백제의 獨山城 즉 馬津城(예산군 예산읍)을 공격해 왔으며, 백제는 신라에게 구원군을 청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신라가 백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장군 朱珍과 군사 3천을 보내 독산성 아래에서 고구려군을 대적하였다.<sup>7)</sup> 그런데 이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먼저 고구려가 쉽사리 패배하고, 전투에서 잡힌 고구려측 포로가 ‘이 전쟁의 발단이 안라국 및 왜신관이 백제의 처벌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함으로써 고구려와 안라 사이의 밀통이 발각되었다. 그러한 증거를 잡은 백제가 안라 및 왜신관의 소환을 요청하였지

6)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6년 5월·9월, 7년 6월, 8년 4월.

7) 《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성왕 26년 정월.

만 그들은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제는 가야 외곽지역에 왜군 및 백제군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왜 및 가야연맹의 협조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왜에 병사 파견 중지요청을 내렸다.

한편 백제가 안라뿐만 아니라 「왜신관」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므로 왜는 백제의 의심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왜는 자신이 사태에 연루되지 않았으므로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무혐의 증명을 위한 형식으로 약간의 사람을 보내 안라가 도망한空地를 채우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는 한술 더 떠서 왜는 이나사·마도가 몰래 고구려에 사신 보낸 것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백제편을 들었다.<sup>8)</sup>

백제에 대하여 더 이상 대항할 논리도 계획도 사라진 상태에서 안라의 상충부는 무력화되었다. 이제 성왕이 전에 주장하였던 세 가지 계획은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후로는 가야연맹의 어느 일국이나 왜가 백제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백제 성왕은 549년 및 550년 초에 걸쳐서 가야연맹에 대한 부용화를 끝마쳤으며, 왜에 대해서도 선진문물을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大盟主의 위치에 섰다.

541년부터 550년까지의 약 10년간에 걸쳐 가야연맹은 안으로는 대가야와 안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패권을 하나로 모으려는 내부 경쟁을 계속해왔으며, 밖으로는 백제·신라·왜·고구려 등의 사이에서 상호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독립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적으로 모색해 왔다. 그러나 백제 성왕이 신라와 외면적인 화친을 유지하면서 선진문물을 이용하여 가야연맹제국 및 왜를 포섭하는 외교전략을 펴나감에 따라 결국 그에 휘말려 가야연맹은 독자적 세력을 수립키 위한 자기 구제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채 백제의 부용으로 전략하였다. 백제의 부단한 노력으로 백제와 왜의 교역관계가 정상화되자 실질에 기반을 두지 않는 안라의 왜신관은 구실로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8)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9년 4월.

## 3) 가야연맹의 신라 복속

늦어도 550년 초까지 가야연맹 제국은 백제에게 半종속상태로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인 550년 3월에 백제가 빼앗은 고구려의 道薩城(괴산군 도안면)과 고구려가 함락시킨 백제의 金峴城(진천군 진천읍)을 신라가 다시 빼앗아가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신라와 백제간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내분상황을 포착하고, 공동으로 복진하여 한강유역을 탈취하려고 모색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551년에 백제와 신라는 한강유역 탈환에 나서, 백제는 하류지역을 공략하고 신라는 상류지역을 공략하였다. 이 때 가야는 백제군을 따라 전쟁에 동원되었다. 이 당시 신라 진흥왕은 娘城(청주)에까지 순수해 갔는데, 가야에서 투항한 우륵과 그 제자 尼文을 불러 그 음악을 들었다고 하였다.<sup>9)</sup>

우륵은 省熱縣 즉 斯二岐國 출신의 사람으로 대가야의 궁정악사였다. 그러한 인물이 대가야가 멸망하기도 전인 551년 3월에 이미 신라에 투항해 있었다는 것은 대가야의 몰락을 예견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야연맹의 백제 부용화가 확정되자, 그는 자신의 12곡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신라로 망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륵이 지었다는 12곡은 寶伎·師子伎 등을 제외하고는 지명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야연맹에 소속된 여러 소국들에 전하는 특징적인 음악들과 몇 가지의 伎樂이 합쳐진 것으로서 우륵은 이를 琴曲으로 다시 만든 것이다. 진흥왕은 이를 신라인에게 전수시켰는데, 이는 가야지역 병합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한강유역 탈환전이 성공한 후 552년의 시기에 가야연맹은 그 패권이 대가야국과 안라국의 둘로 나뉘어 있는 채로 백제에게 종속적으로 연합되어 대외관계면에서 백제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었다. 또한 백제는 왜에 불상·경론 등의 문물 전수를 하면서 군병을 요청하였고, 왜는 선진문물이 궁하여 백제의 요청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sup>10)</sup> 백제는 가야연맹의 군대와 아울러 왜의

9)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2년 3월.

10)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3년 5월·10월, 14년 정월·6월.



군대도 계속적으로 동원하는 체제를 모색 중이었다고 보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신라에 대한 공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의 遠謀가 실효를 거두기도 전에 신라는 553년 7월에 백제의 한강 하류지역 땅을 기습적으로 빼앗고 新州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제는 왜로부터 1천 명의 군병을 받고, 그 직후인 554년 7월에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백제·가야·왜 연합군을 조직하여 신라의 管山城 공격에 착수하였다. 이 전쟁의 장소는 관산성 즉 충북 沃川지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강 하류유역과 가야지역에 대한 패권을 다투는 일대결전이었다.

가야연맹 제국은 백제에 의하여 동원되어 이 전쟁에 임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싸우기보다는 전황의 대세를 짐치는 방관자적인 군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전쟁 초기의 상황은 공격을 개시한 백제 측이 유리하여 관산성을 불질러 함락시키는 등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으나, 신라의 전선을 깨뜨리고 깊숙이 쳐들어간 왕자 餘昌을 위문하려고 백제 성왕이 찾아가다가 복병에게 시해되자 백제·가야연합군은 단번에 무너져서 크게 패배하였다.<sup>11)</sup>

그런데 백제가 이러한 큰 패배를 당하는 틈을 타서 북방 고구려가 백제 熊川城(공주?)을 침범해 왔으나, 백제는 고구려로부터의 공격을 쉽사리 방어해 냈다. 이로 보아 전쟁의 결과는 백제에게도 타격을 주었으나 그 직접적인 상처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가야측의 피해가 훨씬 컸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산성을 둘러싼 이 전쟁의 결과 가야연맹은 큰 피해를 입은채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 후 555년부터 558년에 걸친 일련의 한강유역 경영을 대략 마치고 나서 신라는 가야연맹에 대한 병합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560년경에 안라국이 먼저 신라에 병합된 듯하다. 왜냐하면 안라를 대표로 하는 가야 남부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외교역의 중심지였는데, 신라가 이 때부터 왜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한편으로 「阿羅 波斯山」에 성을 쌓아 왜에 대비하기도 하였으며, 기록에 따라서는 임나가 560년에 멸망하였다는 이설이 보

11)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5년 7월.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5년 12월.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2)</sup> 다만 안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멸망하였는가를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신라의 강압과 회유에 안라가 저항없이 이에 응함으로써 병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 안라는 기존에 이나사·마도 등에 의한 친신라적 교류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백제로부터 직접적 연관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는 쉽사리 신라에게 투항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북부지역은 조금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대가야는 왜나 백제와의 교역보다는 자체의 제철능력이나 안정적인 재지농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말기에는 백제측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친백제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신라에 대하여 좀더 독자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듯하다. 대가야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 주변의 가야연맹 제국도 쉽사리 신라에게 투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라로서도 고구려나 백제측의 동정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는 쉽지 않았던 듯하다. 그리하여 신라 진흥왕은 재위 22년(561) 즉 辛巳年 2월 초하루에 상당수의 중앙관료들과 比子伐·漢城·碑利城·甘文의 四方軍主들을 대동하고 창녕지역까지 巡守해 와서 軍勢 시위를 하고 일련의 사면 조치도 취하였는데, 이는 가야연맹 제국에 대하여 위협과 유화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라측의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대가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즉시로 전쟁을 일으켰다거나 투항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그러므로 아마도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측의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측의 압박을 받아 스스로의 투항을 위한 조건을 타진하는 등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중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대가야가 어떠한 선제 군사행위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 사다함의 5천 기병이 대가야 국도까지 먼저 쳐들어갔다. 신라측 기록에 의하면,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가라국을 「습격」케 하였으며, 가라 사람들은 「뜻밖에 신라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므로 너무 놀라서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sup>13)</sup> 그러므로 대가야는 신라 대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멸망하였던 것이다.

12)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21년 9월 및 22년·23년 정월 細注.

13) 《三國史記》권 44, 列傳 4, 斯多舍.

이를 마지막으로 하여 나머지 대부분의 가야연맹 제국은 대세에 눌려서 거의 일시에 신라에게 항복하고 말았다고 추측된다. 흘명기 23년(562) 춘정월 조의 이른바 임나 10국 멸망기사는 멸망 시점이 정확히 표기된 것으로 여겨 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최종 투항사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562년 9월 가라국 즉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안라국·사이기국·다라국·줄마국·고차국·자타국·산반하국·결손국·임례국 등의 가야 10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전통적으로 왜와의 교역에 전념하지 않는 신라가 관산성전투 이후 백제측의 동향마저 무시하고 무력 병합에 나서자 가야연맹 제국은 자체 저항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金泰植〉